

북한, 올해 첫 무력시위 동해상 미사일 1발 발사

최근 1년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



2021년

- ① 1월 22일 평안북도 구성에서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 2발 발사
- ② 3월 21일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 2발 발사
- ③ 3월 25일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
- ④ 9월 11~12일 신흥 장거리(약 1,500km) 순항미사일 발사(위치 미상)
- ⑤ 9월 15일 평안남도 양덕에서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 2발 발사
- ⑥ 9월 28일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1발 시험 발사
- ⑦ 9월 30일 신흥 반항공(지대공)미사일 시험 발사 (위치 미상)
- ⑧ 10월 19일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 1발 발사(미나 SLBM 추정)

2022년

- ⑨ 1월 5일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 발사 (위치 미상)

자료/합동참모본부

연합뉴스

극초음속 미사일 성능 테스트 관측도 함참 “한미 간 공조하에 대비태세 유지”

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쏘았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5일) 오전 8시 10분경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의 신년 첫 무력 시위다. 작년 10월 19일 신흥 잠수함발사탄도 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78일 만이다.

함참은 사거리와 고도 등 구체적인 제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사거리 등을 바탕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9월 28일 북한이 처음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의 후속 시험 발사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은 첫 발사 때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군 당국은 초기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목표 성능에 미진했다고 판단한 ‘화성-8형’의 성능 테스트 일환 아니냐는 해석이다.

북한군이 지난해 초부터 동계훈련을 진행 중인 만큼 훈련의 일환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말 개최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현대전에 상응한 위력한 전투기술기재개발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며 국가방위력의 질적변화를 강력히 추동하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목표를 계획적으로 달성해나가기 한다”며 새해에도 국방력 강화에 매진할 것임을 다짐한 바 있다.

이는 새해에도 국방력을 강화할 것이라 강한 의지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올림픽 경기장 시찰하는 시진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막을 한 달 앞둔 4일 베이징의 국가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을 방문해 자국 선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시 주석은 이날 경기장과 운영지원본부 등 올림픽 현장을 시찰했다.

/연합뉴스

홍콩인 58% “홍콩서 살기 싫다”

43% “중국 반환 후 자유 줄어” 민주당 “정부 실망·신뢰 안해”

‘홍콩의 중국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홍콩인 58%가 홍콩에서 살기 싫다고 답한 설문 결과가 나왔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제1야당인 민주당은 지난해 14~24일 5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설문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22%는 홍콩을 떠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이렇게 답한 이들 중 75%는 대졸 이상의 학력자로 나타났고 1%는 3년 내 이민 계획을 이미 세웠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의 43%는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개인의 자

유가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다만 일국양제가 지켜지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긍정과 부정의 답변이 나란히 40%로 갈렸다.

이번 설문 결과는 정부가 2019년 반정부 시위 이후 사회의 분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민주당은 지적했다.

찬포밍 민주당 경제정책 대변인은 SCMP에 “2019년 이후 사람들은 정부에 매우 실망했고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당국은 시민들의 요구나 불만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문 결과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계속 누적되고 있고, 많은 고학력자가 홍콩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보여줘 우려스럽다고 했다.

지난해 8월 홍콩 정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중반부터 2021년 중반까

지 1년간 홍콩 인구는 1.2% 줄어들었으며, 거주권자 8만9,200명이 홍콩을 떠났다. 이는 그 전 1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중국이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을 기조로 홍콩의 선거제도 전면 개편한 이후 야권의 정치 참여는 사실상 봉쇄됐고, 지난해 19일 치러진 입법회(의회) 선거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불참 속 친중 진영이 싸움이 됐다.

또 지난 30여년 홍콩이 중국과 다르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온오프라인 민주화시위 추모집회가 2년 연속 불발됐고, 당국이 불허한 해당 추모집회와 관련했다는 혐의로 수십명이 기소됐다.

그러나 홍콩 정부와 중국 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선거제 개편으로 홍콩에 안정과 질서가 회복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고속도로 폭설로 80km 마비

수전 펠런은 월요일인 3일(현지시간) 오후 8시 미국 버지니아주 프레더릭스를 떠나 I-95 고속도로를 뒀다. 눈이 많이 왔지만 목적지까지 한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펠런은 고속도로 위에 멈춰 선 차 안에서 밤을 꼬박 보냈다. 화요일인 4일 아침 7시까지 목적지에 도착하기는 커녕 길게 늘어진 차량 행렬이 움직일 기미도 없었다. 전날 쏟아진 폭설로 도로가 마비된 탓이다. 고속도로 중간에 대형 트럭 여러 대가 사고가 나면서 그칠지 않아도 심한 정체가 더욱 심해졌다.

펠런은 CNN방송에 “걸어가는 게 더 빠르겠다”면서 “이건 기록적”이라고 토로했다.

그나마 펠런은 차에 기름이라도 가득 채운 상태였다. 바깥 기온은 밤새 영하였다. 펠런은 운전자들이 혹시 모를 상황에



4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북부 I-95 고속도로에서 폭설에 갇힌 각종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다. /AP-연합뉴스

대비해 기름을 아끼려고 시동을 껐다가 히터를 잠깐씩 틀며 버텼다고 전했다.

I-95는 플로리다주부터 메인주까지 미국 동부 지역을 남북으로 길게 잇는 주간 고속도로다.

정체가 이날 오후까지 풀리지 않으면서 길게는 24시간 넘게 꼬박 도로에 갇힌 이

들이 속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정전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오전 버지니아 주에서만 약 30만 가구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으며 조지아주와 메릴랜드주에서도 40만 가구가 정전 상태라고 CNN은 전했다.

/연합뉴스

탈레반, 정규군에 ‘자폭 부대’ 편성 추진

아프가니스탄 재장악에 성공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자살폭탄 부대’를 정규군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4일 아리나뉴스 등 아프간 언론에 따르면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정부 대변인은 현지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정자 정규군에 ‘순교 대원’으로 구성된

부대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탈레반은 과거 수십 년 동안 외국군과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잔혹한 자폭 테러를 벌였으며 이렇게 목숨을 잃은 대원에 대해서는 ‘순교’했다고 표현해왔다.

하야마통신은 무자히드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탈레반이 ‘자폭 공격 대원’을 미

래 정규군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자히드 대변인은 “순교 부대에 소속된 전사들은 물론 정규군에 소속될 것”이라며 이들은 국방부 아래 조직으로 배치되며 특수부대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부대는 특수 작전에 동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특수 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 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